

연결과 소통, 지구촌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종합정보지

PEACE TUNNEL

magazine

통권 18호 11
NOVEMBER 2013

한일관계 위기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| 정재정

내 생각에는 | 이영탁
신세대를 위한 주례사

인물탐방 | 한미 연합사의 멘토 이성출
“전시작전권 전환 특정시점 못 박지 말아야”

COVER STORY

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



9 772233 467004
ISSN 2233-467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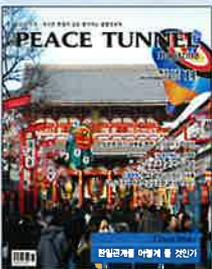
발행일 2013년 11월 1일

발행인 이용흠
편집장 정성수
사진 이장환
디자인 장인선
인터넷 김주홍
독자관리 안현열

발행처 세계평화터널재단
150-03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7번지

등록 2010년 9월 3일
등록번호 영등포 마 00016

전화 02)3471-7698
팩스 02)3471-7694



일본 도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 아사쿠사(浅草) 센소지(浅草寺) 앞 상점가의 신정 설날 풍경. 센소지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절로 알려져 있다. 거리에 걸려 있는 팽이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일본도 한국처럼 설날에 팽이치기 풍습이 있다.
사진제공=신장철 송실대 교수

본지는 잡지윤리위원회의 도서·잡지 윤리실천요강과 한국잡지협회의 잡지 판매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합니다.

커버스토리 |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

- 05 한일관계 위기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| 정재정
- 13 '아베노믹스(Abenomics)' 패러독스 | 신장철
- 17 '좋은 이웃' 역사 재인식 협력 강화해야 | 강대민
- 22 한국, 中·日 갈등 중재역할 바람직 | 박영준
- 26 "화해추진 공동기구 필요하다" | 이원덕
- 31 한일 우호프로젝트를 그려본다 | 박원홍

37 **인물탐방** | 한미 연합사의 멘토 이성출 예비역 대장
"전시작전권 전환 특정시점 못 박지 말아야"

44 **내 생각에는** | 신세대를 위한 주례사 | 이영탁

46 **NEWS & ISSUE** |

독일~덴마크 해저터널 추진계획 막바지
중국, 세계최장 다렌~엔타이간 해저터널 추진
中·日, 동남아 고속철 수주 경쟁
코레일 첫 여성 사장에 최연혜씨

50 **발행인의 편지** | 왜 평화 운동인가 | 이용흠

정기구독 안내

● 정기 구독료

- 1년 정기구독료 18,000원
- 정가 3,000원

● 구독 안내 전화
02)3471-7698

● 인터넷 구독신청
info@fpu.kr

連結と疎通、平和の道を開く海底トンネルの総合情報誌

PEACE TUNNEL

Magazine

通巻 18 号

JANUARY 2013 11

韓日関係の危機克服にむけての長い旅/チョン・ジエヨン
私の考えは/イ・ヨンク
新世代のための媒酌人

人物探訪/韓米連合史の◆ イ・ソンチュル
「戦時作戦権転換の特定時点を◆」

私の考えは/キム・イノ
「朴槿恵政府の経済課題」

カバーストーリー

韓日関係をどのように解きほぐすか

目次

発行日 2013年11月1日

発行人 イ・ヨンム

編集長 チョン・ソンス

写真 イ・ジヤンファン

デザイン チャン・インソ

インターネット キム・ジユン

読者管理 アン・ヒョンヨル

発行所 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
150-036 ソウル市永登浦区永登浦洞
6街7番地

登録 2010年9月3日

登録番号 永登浦 마 00016

電話 02-3471-7698

FAX 02-3471-7694

カバーストーリ 韓日関係をどのように解きほぐすか

05 韓日関係の危機克服の長い苦難の道 / チョン・ジエジョン

13 アベノミクスの逆説 / シン・ジヤン Chol

17 良き隣人 歴史再認識の協力強化を / カン・デミン

22 韓国、中・日葛藤の仲裁役が望ましい / パク・ヨンジュン

26 和解推進共同機構が必要 / イ・ウオンド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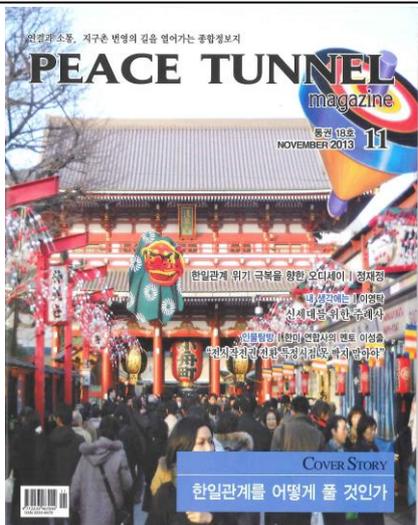
31 韓日友好プロジェクトを描くと / パク・ウオノホ

37 人物探訪 / 韓米連合史の◆ イ・ソフユル予備役隊長
“戦時作戦権転換の特定時点を◆

44 私の考えは / 新世代のための媒酌人 / イ・ヨンク

46 NEWS & ISSUE
ドイツ～デンマーク海底トンネル推進計画が最高潮
中国、世界最長の大連～煙台間の海底トンネルを推進
中・日、東南アジアの高速鉄道受注競争
コレイル初の女性社長にキ・ヨネさん

50 発行人の手紙 何故、平和運動なのか / イ・ヨンム



日本の東京が誇る世界的な観光名所、浅草の浅草寺前の商店街の新年の風景。浅草寺は東京で最も古く大きな寺として知られている。通りに吊されているコマを見てわかるとおり、日本も韓国のように正月にコマを回す習慣がある。
写真提供=シン・ジヤン Chol 崇實大学教授

定期購読案内

- 定期購読料
 - ・ 1年定期購読料 18000ウォン ・ 定価 3000ウォン
- 購読案内電話 02-3471-7698
- インターネット購読申請 info@fpu.kr